

GIST-Caltech 학부생 교류, 10년 동행 마친다

2011년부터 이어져 왔던 GIST와 Caltech(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이하 칼텍)의 학부생 교류 프로그램이 10년간의 동행을 뒤로하고 종료됐다. GIST는 지난 2021년 말 칼텍과의 MOU 만료 후 올해 5월까지 학부생 교류 프로그램 연장을 논의해왔으나,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에 GIST는 기존 모빌리티 프로그램 등 해외 교류 제도 강화와 새로운 대체 프로그램 확보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GIST - 칼텍 교류 협력의 발자취

교류 협력이 시작된 이래 GIST와 칼텍은 그야말로 ‘각별한 사이’였다. GIST는 학부 과정 설립 초부터 ‘소수 정예 영재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칼텍을 모델로 삼았다. GIST는 학부 과정 설립 이전인 2009년부터 칼텍과 접촉해 커리큘럼을 자문한 것을 시작으로 교류를 이어왔다. 학부 설립 2년 차인 2011년에 칼텍의 여름학기 연구 프로그램인 SURF 프로그램에 GIST 학부생 2명을 파견하며 학부생 교류의 시작을 알렸다.

GIST와 칼텍의 교류 협력은 지난 2012년 MOU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GIST의 지속된 접촉과 노력된



상화 = 주서현 기자

사진 제공 = GIST, Caltech

교류 성과로, 공동연구와 학생교류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류 협력을 체결한 것이다. 당시 칼텍과 교류 협력을 맺은 학교는 전 세계에 10여 개 남짓이었다.

MOU는 정부의 ‘지스트-칼텍 공동연구’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체결됐다. 2013년부터 GIST가 선정된 신소재·생명·의료 분야의 공동연구 주제에 정부의 투자금이 투입됐다. 활발한 연구 교류를 위해 MOU로써 공동연구 분야의 협력을 확보했고, 학생교류 협력도 덧붙여 같이 시작했다.

두 대학의 교수, 연구원, 학생은 양

학교를 오가며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협력 분야에서는 단일 과제 공동연구, 연구 협력기금 조성, 공동연구소 설립 등이 추진됐다. 특히, 두 대학의 교수가 연구 그룹을 구성하는 단일 과제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GIST는 한국에서 최초로 칼텍과 일대일 공동연구를 진행한 학교가 됐다.

학생교류 프로그램 역시 여러 방면으로 이뤄졌다. MOU 하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칼텍 SURF 프로그램 ▲칼텍 SAP ▲칼텍 교환 초청 계절학기였다. GIST는 2021년 1명을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32명의 학생을 칼텍에 파견했다. SURF 프로그램을 통해 두 학교는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갔다. 칼텍의 SURF(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Fellowships)는 10주간 지도교수를 배정해 연구를 진행하는 학부생 대상 하계 연구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칼텍의 제시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의 학생들에게 열려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개별 지원해 참여한다. GIST는 칼텍과의 협력하에 매년 재정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할 학생을 선발해 파견했다.

연구 기회뿐 아니라 칼텍 정규학기 수강 기회도 제공했다. GIST는 해외 대학 정규학기 파견 프로그램(SAP, Study Abroad Program) 대상 학교에 칼텍을 포함해 운영했다. 파견된 학생은 칼텍의 정규학기 수업을 수강하고, 일정 이상의 학점을 GIST 졸업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선발 학생이 없었던 2018년을 제외하고, GIST는 2014년부터 종료 당해인 2021년까지 매년 2명 이내의 학생을 꾸준히 파견했다. 2020년과 2021년은 파견 학생을 선발했으나, 코로나19로 파견이 취소됐다.

< 5면으로 이어짐 >

당신의 모습이 셀프 결제 편의점 운영 기준을 만듭니다



학생회관에 무인 편의점이 입점한 지난 7개월 동안 각종 도난 및 미결제 사건이 발생했다. (지스트신문)은 편의점 점주를 만나 도난 및 미결제 사건의 현황을 취재했다.

도난 및 미결제에 인한 피해 금액은?

제1 학생회관과 제2 학생회관 총합하여 월 200만 원 정도다. 제1 학생회

관은 월평균 120만 원, 제2 학생회관은 월평균 80~90만 원 남짓 피해를 본다. 입점 초기에 피해 금액이 더 많았음을 고려하면 운영 7개월 동안 약 2,000만 원의 손실이 있었다.

도난 및 미결제의 대상 품목은?

주로 탄산음료와 기능성 음료, 면류, 캔디, 감, 스낵을 대상으로 도난 및 미결제 사건이 많다. 개별 물품은 저렴하지만, 도난 및 미결제 사건이 쌓여 큰 타격을 입었다.

도난 및 미결제를 예방하는 방안은?

일차적으로 카드를 삽입해야 무인 편의점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으로 가게 내부에서 송출되게 한 안

내 음성 역시 도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무인판매기(키오스크)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가 누락된 상품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음성이 재생된다. 또한, 가게 내부에 폐쇄회로(CCTV)와 CCTV 화면이 보이는 대형 모니터를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벽면을 비롯한 가게 곳곳에 “CCTV 녹화 중”, “당신의 모습이 셀프 결제 편의점 운영 기준을 만듭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했다.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제2 학생회관의 경우에는 학부생 이용자가 많으므로 각 학번의 단체 카톡방을 통해 연락을 요청한다. 카톡방 혹은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 후 편의점

으로의 방문을 요청해 재검제를 진행한다. 발견한 도난 및 미결제 사건의 CCTV 동영상 및 사진 자료를 학교 측과 협의 시 증거 자료를 보관 중이다. 도난 및 미결제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학교와의 추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용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도 모든 물품이 결제됐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비의도적인 미결제에 의한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결제 전 바코드가 찍히지 않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해주면 좋겠다. 작은 협조가 건강한 편의점 이용 문화를 만든다.

종합

지스트신문 인지도조사 실시

〈지스트신문〉은 본보의 인지도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작년에 이어 1년 만에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총 301명이 응답했다. 학부생 108명(32.9%), 대학원생 138명(42.1%), 연구원 33명(10.1%), 교원 20명(6.1%), 직원 27명(8.2%), 기타 2명(0.6%)이 참여했다.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5.41%p다.

2022년 〈지스트신문〉 열독률, 작년 대비 소폭 상승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스트신문〉을 읽어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65.2%(214명)다. 작년 59.7%에서 5.5%p 상승했다. 다

만 소속에 따라 열독률의 차이가 있었다. 학부와 대학원은 각각 20.1%p와 3.2%p씩 상승했지만, 교원과 연구원은 10%p 이상의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교원은 여전히 70.0%로 학부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열독률을 보였다.

올해 발행된 〈지스트신문〉 중 몇 월 호를 읽어봤는지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3월 호 33.2%, 4월 호 40.7%, 6월 호 57.9%, 9월 호 62.1%로 매달 꾸준히 증가했다. 기사 탐독의 유형은 작년과 유사했다. 흥미로워 보이는 기사만 읽는 독자의 비율이 51.4%로 가장 높았고 전체적인 기사 제목을 훑는다고 답한 독자의 비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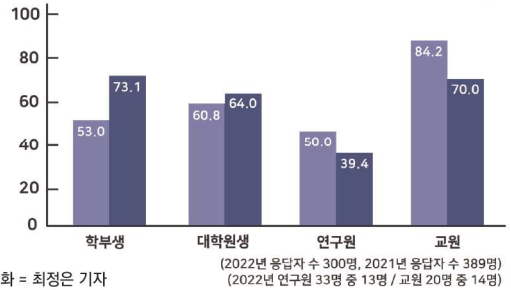
40.7%였다. 반면 모든 기사를 꼼꼼하게 읽는 독자는 9.8%로 6.9%p 감소했다.

독자는 〈지스트신문〉을 주로 종이신문(92.1%)을 통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웹사이트(12.1%)나 인스타그램(10.3%) 등 타 매체의 이용률은 저조했다. 종이신문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판대의 위치는 ▲학생회관(49.5%) ▲대학동(48.0%) ▲대학(원)생 기숙사(37.7%) ▲중앙도서관(34.8%)인 반면, ▲다산빌딩(17.2%) ▲행정동(14.7%) ▲오룡관(7.4%)은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영문 기사, 근본적 변화 필요

〈지스트신문〉은 외국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 호 한 면의 영문 기사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 설문은 한국어로만 진행돼 외국인 구성원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설문에 참여한 외국인 구성원들은 대체로 영문 기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외국인 응답자는 “신문이 거의 한국어로 되어 있어 읽을 수 없다”며 영문 기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지스트신문〉이 은찬 편집장은 “외국인 구성원 역시 우리 신문의 독자이기에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별 지스트신문 열독 비율 (단위 : %)



〈지스트신문〉, 아직은 부족한 홍보

〈지스트신문〉은 홍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4.3%만 〈지스트신문〉 인스타그램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인지도가 44.4%인 학부를 제외하면 나머지 구성원의 인지도 평균은 13.0%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스타그램 홍보를 통한 기사 유도 효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인스타그램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인스타그램이 〈지스트신문〉을 읽는 데 영향을 줬다고 답한 응답자는 35.6%(26명)로 높지 않았다. 응답자 다수가 “콘텐츠가 단순 이벤트 위주”라며 “카드뉴스의 업로드 시기가 지면 신문 배치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

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스트신문〉은 2021년 인지도 조사를 통해 홍보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맞춰 SNS를 활용했으나 구조상의 한계와 함께 낮은 활용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스트신문〉은 독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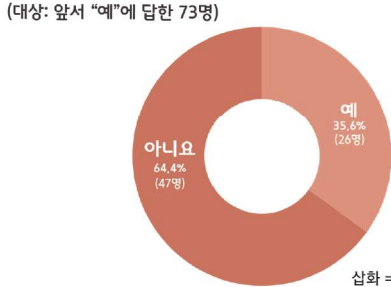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지스트신문〉 웹메일 서비스는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독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62.5%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신문에 흥미가 없어서 〈지스트신문〉을 읽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51.2%가 구독을 희망했다. 〈지스트신문〉은 이번 인지도 조사를 발판삼아 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김예릭 기자
key030704@gm.gist.ac.kr

Q. 〈지스트신문〉 인스타그램을 알고 있는가?



Q. 〈지스트신문〉 인스타그램이 기사를 읽는데 영향을 줬는가?



합계 = 주서현 기자

GIST의 새로운 영상제작 단체, GGUN을 만나다



화목한 분위기의 GGUN 단체 사진이다.

지난 9월 28일 GIST의 영상 콘텐츠 제작 단체 GGUN이 출범했다. GGUN은 기존 영상 제작 단체였던 GISTV와 유튜브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가 합쳐져 만들어진 홍보팀 산하 영상 콘텐츠

제작 학생단체다. GGUN의 설립 주지는, 내부로는 구성원에게 공감이가는 이야기를 담고 외부로는 GIST의 인지도를 높이며 학교 안팎으로 관심을 받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지스트신문〉은 GGUN의 김태윤(소재, 20) 대표를 만나 GGUN의 다양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들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GGUN 소개를 부탁드린다.

GGUN 1기 회장 김대윤이다. GGUN은 설립 초기 단계지만 GIST 구성원을 주제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GGUN 설립 이전에는 GISTV와 서포터즈가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GISTV는 재미를 위한 일회성 영상과 교내 행사 영상을 제작했고, 서포터즈는 GIST와 관련된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의 영상을 제작했다. GIST를 배경으로 영상을 만든다는 목적을 지닌 두 단체를 합쳐, 기존 활동에 힘을 모으기 위해

GGUN을 만들었다. GGUN에서는 앞으로 정기 영상 콘텐츠와 교내 행사 스케치 영상, 브이로그 등과 같은 다양한 단기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GGUN의 영상 제작 과정이 궁금하다.

GGUN은 대외 협력팀, 디자인팀, 문서팀 3개로 구성된다. 대외 협력팀은 영상 출연자를 섭외하고 SNS 홍보도 진행한다. 디자인팀은 영상 제작에 필요한 로고, 자막, 썸네일 등을 만든다. 문서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종 문서를 관리한다. 그리고 부원들은 동시에 정기 영상팀, 대외 영상팀, 단기 영상팀 중 한 팀에 속해 영상을 만든다. 영상 주제는 매주 일요일 정기회의 때 정한다. 이때 정해진 주제로 각 영상팀

GIST 구성원의 모습, 영상으로 담아내다

에서 세부 기획을 진행한다. 이후 기획안과 완성된 영상을 홍보팀으로부터 검토받는다. 이때 심의를 통과하면 홍보팀의 지원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한다.

앞으로 제작할 영상에 관한 소개 부탁드린다.

정기 영상팀은 '유 퀴즈 온 더 블럭' 프로그램을 오마주해 '치퀴즈 온 더 지스트'(이하 '치퀴즈')라는 영상을 매달 업로드할 예정이다. '치퀴즈'는 GIST 구성원들을 섭외해 최근 가장 인상 깊은 일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고 답하는 콘텐츠다. 이 콘텐츠는 GGUN의 부원뿐 아니라 GIST 구성원이 직접 영상에 출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영상이 반복되는 느낌을 줄이고, 가까운 구성원들을 영상에 등장시킴으로써 시청자와의 거리감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외 영상팀은 교내 공연이나 축제 영상을 제작한다. 최근에는 밴드 동아리 합동공연 촬영에 나섰다. 학생들이 공연하는 모습 중 하이라이트 부분만 편집해 10월 중순에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 영상팀에서는 기존 GISTV에서 진행했던 콘텐츠처럼 일회성으로 GGUN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활동 중 힘들었던 점은?

평소 영상 제작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

영상의 조회수, 좋아요, 댓글 등의 수치가 낮았다. 그 때문에 영상이 저평가되는 듯싶었고 구독자에게 우리의 노력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웠다. 그렇지만 단순히 좋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 이상으로,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영상 제작 활동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상 제작에 보람을 느끼며 낮은 조회수나 적은 좋아요가 관련 고민을 덜어낼 수 있었다.

또한, 서포터즈와 GISTV의 부원들이 잘 융화될 수 있는지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방학 동안 같이 교육 받고 '치퀴즈'를 함께 촬영하면서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함께 MT를 다녀오며 GGUN 부원으로서 하나가 된 지금은 더 이상 고민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GGUN은 정해진 업무가 있는 다른 자치회와 달리, 영상 제작과 관련이 있다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학생이 이 점을 고려해 GGUN에서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창 시절 매주 월요일, 전날 방영한 개그콘서트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GGUN의 영상 또한 GIST 구성원의 일상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목표도 있다. GGUN에서 다채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준비하려고 하니 학생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변진철 기자 byunic34@gm.gist.ac.kr

GIST-X, 우주를 꿈꾸다

지난 6월 1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주최한 '2022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GIST 위성 개발팀인 GIST-X가 2차 경연에 진출했으나 아쉽게 탈락했다. GIST-X의 위성 '에렌델'은 누리호 제4차 발사 때 탑재돼 감마선 폭발 관찰 및 광도 곡선 분석 임무 수행을 목표로 개발됐다. 위성 연구의 불모지인 GIST에서도 학생들은 KARI와 GIST의 지원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이어갔다.

로 감마선 폭발의 광도 곡선을 얻어낸다면 외부 은하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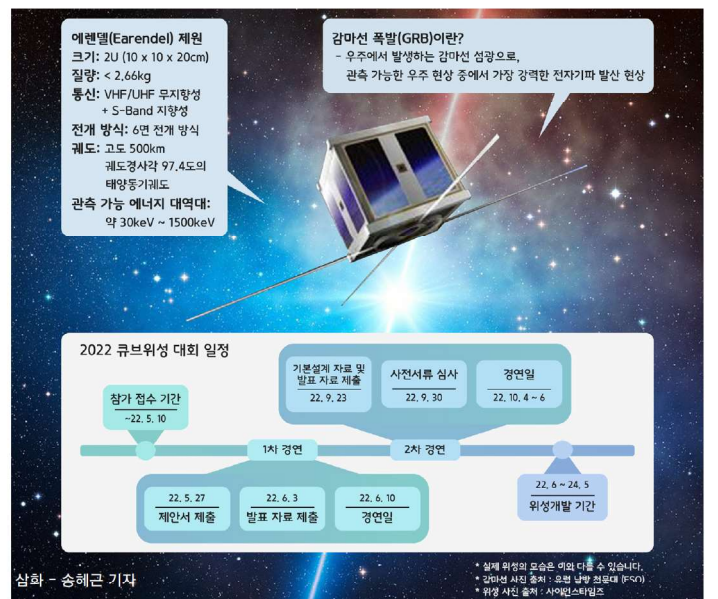
KARI와 GIST의 도움으로 완성되는 에렌델

KARI는 위성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팀원들은 KARI의 이선호 박사에게 수시로 연락해 개발 중 마주치는 구조 해석⁴⁾에서 자문을 구했다. KARI의 예산 지원도 있었다. '2022 큐브위성 경연대회' 2차 경연에 진출한 기초위성 4개 팀은 각각 3억 원의 개발비를 지원받았다.

GIST 기계공학부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예산 관리 업무를 지원했다. 이 팀장은 "GIST에서 예산을 관리해 준 덕분에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기계공학부 최성임 교수는 위성체의 열 해석에 참여해 연구를 도왔다.

커지는 민간 항공우주 산업 GIST도 투자 확대해야

이 팀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개발 기간이 짧은 큐브위성은 여러 번 발사가 가능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GIST-X는 석사생과 학부생들도 효율적으로 다양한 관측을 할 수 있는 큐브위성을 지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우선적인



큐브위성 사진 = 이슬기, "초소형 위성 '큐브셋' 전성시대", <The Science Times>, 2014.10.16
감마선 폭발 사진 = 유럽남방천문대(ESO) 제공

목표는 에렌델의 임무 수행을 성공시키는 것이지만, 앞으로 지구 근접 소행성을 관찰하기 위한 위성을 제작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GIST에는 아직 항공우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가 없다. 이 팀장은 "GIST 내 학과들이 힘을 모아 우주에 관한 연구와 투자를 늘렸으면 좋겠다. 항공우주 분야의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GIST의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13일 이 팀장은 아쉬운 본선 2차 진출 실패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석사과정생과 학부생이 중심이 된 GIST의 첫 위성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도전이었다는 평가다. 연구가 계속돼 GIST만의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날을 소망한다.

양태규 기자 taegyuni1105@gm.gist.ac.kr

1) 크기가 (10×10×10)cm³에서 최대 (20×10×60)cm³까지의 인공위성
2) (10×10×20)cm³
3) '2022 큐브위성 경연대회' 안내 자료에 따르면 기초 위성은 고급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창의적인 위성을 말한다.
4) 위성이 발사체를 타고 우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충격과 진동에 대해 위성이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지 해석하는 하문

종합

GIST PRESS, 책으로 GIST 알리다

GIST 내부 출판사 GIST PRESS가 가을학기 개강에 맞춰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서평 행사를 열었다. GIST PRESS는 원고를 모집하고 출판 과정을 지원해 GIST의 새로운 모습을 알린다. <지스트신문>은 GIST PRESS의 신간 정보와 최근 소식을 살펴봤다.

GIST PRESS는 홍보팀 소속 출판사로, 매년 1~2회 출판신청서를 접수해 GIST의 교육 환경과 과학기술 연구를 홍보할 만한 원고를 찾아 책을 펴낸다. GIST PRESS는 지금까지 총 27권의 책을 냈다. 책의 종류는 과학기술 교재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적까지 다양하다. 출간된 책은 일반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거나 LG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다. GIST PRESS 홈페이지에서는 앞으로 나올 책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가을학기 맞이 서평 이벤트 열어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GIST PRESS는 신간 '공감독서'(오왕석 외 4인 저)와 '교수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조용운 역) 두 권을 대상으로 서평 행사를 열었다. GIST PRESS는 두 책 중 한 권을 골라 기대 평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해당 도서를 제공했다. 당첨자들은 도서를 무료로 받는 대신, 개인 SNS나

온라인 서점에 서평을 게시했다.

이번 서평 행사 대상인 두 권 모두 대학생이나 대학 생활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책이다. 신간 '공감독서'는 GIST 1, 2기 졸업생이 대학원에 진학해 독서 모임을 하며 느낀 바가 기록된 책이다. '교수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는 신입생에게 전하는 대학 생활에 관한 조언이 담겼다.

GIST의 다양한 모습을 책으로 알려

출판지원 제도는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출판지원은 GIST PRESS에서 공지한 출판신청서와 예시 원고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끝나면 교수와 연구원으로 이루어진 '에디토리얼 보드'에서 지원할 원고를 결정한다. 이후 저자가 원고를 완성하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GIST PRESS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팀 김민선 씨는 "좋은 주제를 선정하면 출판에 필요한 지원을 전부 받으며 원고를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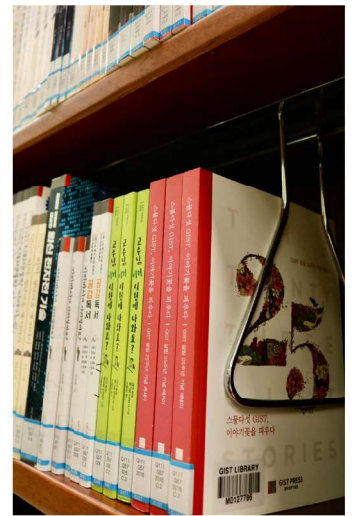
GIST PRESS는 시장성보다 책에 담긴 내용에 주목해 원고를 선정한다. GIST PRESS는 ▲GIST의 교육 환경이나 과학기술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지 ▲GIST 학생에게 추천할 만한지 ▲(교재의 경

우) 과학기술 교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에디토리얼 보드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주제 선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GIST PRESS는 주제를 먼저 제시하고 저자를 모집하는 기획도서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GIST PRESS에서 발간된 도서들은 GIST를 알리는 데 특특히 기여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GIST PRESS에서 출간한 '계산전자공학 입문'(홍성민 외 저)과 '노화와 언어는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최원익 역)가 한국학술원 학술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도서는 전국 각지 도서관에 비치돼 GIST를 간접적으로 알린다. 도서 출판을 통해 독자가 고정된 기관지보다 넓게 GIST를 홍보할 수 있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GIST PRESS

지금까지 GIST PRESS에서 출판된 책의 저자들은 대부분 교수였으나, 학생이나 직원이 저자인 경우도 있다. 직접 겪은 경험을 정리한 원고를 책으로 낼 수 있으며,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하지 않은 책을 번역서로 낼 수도 있다. 2020년에 출판된 '갈라파고스에서 늘려주는 진화 생물학 이야기'(안현수 외 4인 저)는 갈



LG 도서관 서가에 비치된 GIST PRESS 도서

라파고스 제도 현장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을 재구성한 책이다. 신간 '교수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는 GIST 직원이 번역한 도서다.

김 직원은 "GIST 학생이 출판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 많은 학생이 흥미워하는 주제의 도서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GIST PRESS와 출판지원 제도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성우 기자 kimseongu22ug@gm.gist.ac.kr

학생 개발자 간 교류의 장, GIST DEV NIGHT 행사 개최

지난 9월 21일 비상대책위원회 정보국(인포팀)과 전산동아리 WING의 주도로 GIST 내 최초의 개발 콘퍼런스인 'GIST DEV NIGHT' 행사가 개최됐다. 개발 경험이나 역량과 관계없이 학부생 개발자가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자리였다. 행사는 크게 2부로 나뉘어 대면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세 가지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는 주로 개발 경험이 있는 학부생들이 맡았다. 초급 단계에서는 개발 입문자를 대상으로 개발 초기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중급 단계에서는 게임 개발자가 본인의 실전 개발 경험과 게임을 직접 제작해 배포에 성공한 비결을 공유했다. 고급 단계에서는 블록체인, Vite와 같은 웹 개발의 최신 경향이 소개됐다. 발표 사이에는 활발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

2부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과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세션이 마련됐다. 1부와 마찬가지로 초급, 중급, 고급 세션으로 나뉘었고 참가자는 원하는 난이도의 세션에 참여했다. 다양한 개발 분야를 공부하는 학부생이 모이자 관심사와 고민을 나누는 교



정재홍(전컴, 21) 학생이 블록체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류의 장이 열렸다. 네트워킹 세션에 참여한 이동수(기조, 22) 학생은 "신입 개발자가 겪는 문제를 함께 나누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실히 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개발자를 위한 소통의 장 열리다

이번 행사는 개발자를 꿈꾸는 학부생 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의 총책임자인 정보국 이상유(전컴, 19) 국장은 "많은 학부생이 전기전자컴퓨터 공학부를 선택하지만, 재학생 간 교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다. 같은

분야를 공부하면서 친분을 쌓고 정보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았다"며 행사 기획 배경을 밝혔다.

이 국장은 처음 준비하는 행사라 추진에 많은 제동이 걸린 점과 행사 대상이 학부생에 한정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추후 대학원생, 학내 창업자나 산학협력 연구원, 교수, 교직원을 망라한 GIST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블록체인에 관한 발표를 진행한 정재홍(전컴, 21) 학생은 "개발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블

록체인이라는 생소한 개발 분야를 소개하고 싶었다"며 참여 계기를 밝혔다. 정재홍 학생은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발에 관심 있는 학내 구성원이 많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디게임 '그래듀에이터' 개발자 이하윤(전컴, 19) 학생은 직접 제작해 배포한 게임을 발표했다. 이하윤 학생은 홀로 개발한 과거와는 달리 개발자가 모여 교류할 수 있는 행사가 개최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통해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자극을 얻거나, 관심 업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할 기회가 주어지는 등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행사에 참여한 신재홍(전컴, 19) 학생은 "관심은 있었지만 잠시 잊고 있던 게임 개발의 꿈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며 동기부여가 된 점에 만족을 표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성과와 관심 분야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눌 장이 열렸다는 점이 인상 깊다. 앞으로도 개발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공유할 기회가 오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연우 기자 ywkim0412@gm.gist.ac.kr

GIST 해외 교류 프로그램, 새로운 기회 열리나

< 1면에서 이어짐 >

GIST는 칼텍 교원이 강의하는 수업을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칼텍 교원 계절학기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코로나 19 이전까지는 칼텍 전임교수 및 조교를 초청해 세포 물리 생물학과 진화생물학 강의를 GIST에서 열렸다. '갈라 파고스 제도 필드트립'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칼텍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폭넓은 기회가 주어졌다.

소극적 태도로 전환한 칼텍, 일방적 계약에 지친 GIST

지난 2016년, 2015년까지였던 종전 MOU가 2021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나, MOU 체결 당시 핵심적이었던 정부의 '지스트-칼텍 공동연구' 사업 지원이 2019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면서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계약 연장은 불발됐고 MOU는 그대로 만료 절차를 밟았다.

MOU 종료 이후에도 GIST와 칼텍은 학생교류 프로그램 연장을 논의했다. 기존 MOU 체제에서는 학생교류와 공동연구가 함께 추진됐으나, 종료 이후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방안이 논의됐다. 대외협력처는 작년 10월까지 학생교류 프로그램 연장에 양측 모두 긍정적인 전망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10월 이후 칼텍의 대대적인 경영진 교체로 상황이 급변했다. 새로 들어선 칼텍 경영진은 학생교류보다 GIST의 연구비 보조를 조건으로 한 연구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칼텍 측의 대외 학생교류 정책 변경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GIST는 학생교류 프로그램 연장을 고수하며 올해 5월까지 협의를 이어갔다. 결국 양측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고, 10년간의 학생교류 프로그램 역시 계약 종료로 막을 내렸다.

GIST 대외협력처는 학생교류 프로그램 연장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이뤄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대외협력처는 "지난 2년간

칼텍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이어가려 해왔으나, 정부 예산 중단과 칼텍 측의 인사 이동 등 급변하는 원의 상황에 의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칼텍과의 계약이 다소 일방적이었음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동등하지 않은 조건에서 교류를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지스트-칼텍 공동연구 지원 사업의 정부 투자금 일부가 칼텍에 지급되고 있었는데, 뚜렷한 성과 없이 일방적인 투자를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협상 과정에서 연구 교류와 학생 교환 면에서 칼텍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학생교류 프로그램 종료가 확정된 이후, SURF와 SAP 등 칼텍 프로그램 선발 및 파견에 관한 특별한 공지가 없어 학생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외협력처는 계약 종료를 알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밝혔다. 대외협력처는 "기존 칼텍 프로그램 선발이 있었던 1, 2월 전에 공지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까지 칼텍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연장 여부가 정해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결렬 이후에는 종료에 따른 대안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 공지를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발 학생 수 증가, 파견 학교 다변화 꾀한다

GIST는 칼텍과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의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외협력처는 "GIST와 같이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높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는 학교는 여전히 적다. GIST의 장점으로 꼽히는 활발한 해외 협력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GIST는 올해 내로 새로운 대체 프로그램 구성과 예산 편성을 완료해 내년 1, 2월 중 파견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대외협력처는 모빌리티 프로그램 등 보완책이 될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소

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해외 교류 프로그램은 소수 인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선발 학생 수를 늘리고 파견 대상 학교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예정이다. 대외협력처는 기존 칼텍 프로그램을 동등하게 대체할 수는 없으나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존 GIST의 해외 교류 지원 제도의 수정 및 보완이 진행된다. 칼텍 SURF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던 연구 인턴 프로그램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연구 기관에 파견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장학 형태로 변경된다. 칼텍 SAP로 지원하던 정규학기 파견 프로그램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모빌리티 프로그램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 인턴, 모빌리티 프로그램 보강한다

연구 인턴 프로그램은 학생이 파견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지원 학생 수를 늘릴 전망이다. 기존 MOU 하에서는 인턴십 지원 대상 학교를 칼텍으로 한정했다. 이후부터는 칼텍을 포함한 타 대학이나 국내 외 연구소 등 개인이 지원한 인턴십에 대해서도 학교에 요청 시 심의를 거쳐 재정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액 지원을 보장했던 칼텍 SURF 프로그램과는 달리 학생 1인당 지원금은 원이 일부만 부담하되, 지원 학생 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GIST는 2019년부터 시행된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할 전망이다. 모빌리티 프로그램은 GIST와 MOU를 체결한 해외 대학에 학생을 최대 2학기 동안 파견하는 학점 교류 프로그램이다. 항공료가 전액 지급되며, GIST의 정규학기 등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해외 대학의 정규학기를 수강할 수 있다. 2019년 사업 계획 이후 2020년 파견 학생을 선발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 중단됐고, 2021년 재개됐다.

모빌리티 프로그램 파견 대상 학교는 파트너 대학 중 학생교류 협정 대상인

56개 대학 중에서 선정한다. 협정 대학 중 매 학기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확인한 대학에 한정해 학생 선발을 진행한다. 2022년 파견 대상 학교는 프랑스 INSA¹⁾와 영국 하트퍼드셔 대학 등 봄학기 10개 기관, 가을학기 11개 기관이다.

모빌리티 프로그램이 정규학기 수강 프로그램인 SAP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GIST에 등록금을 그대로 낸다는 점이다. 기존 칼텍 SAP는 칼텍이 요구하는 수강료를 GIST가 부담했으나 모빌리티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이 GIST 정규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해외 대학에 파견되는 방식이다.


선발의 문턱도 낮아지면서 더 많은 학생에게 지원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과거 칼텍 SAP의 경우 4학기 이상 재학생 중 평점 평균이 3.7 이상이며 TOEFL IBT 110점을 충족한 학생 중에서 선발했다. 그러나 모빌리티 프로그램은 3학기에서 7학기 등록한 재학생 중 평점 평균 3.0 이상이며 TOEFL IBT 80점 또는 TOEIC 750점 이상 취득한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선발 학생 수 역시 칼텍 SAP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 프로그램은 파견 대상 학교와 국가를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분야 선택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양 학교가 학생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GIST 내 외국인 학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외 국가의 대학은 영어 강의의 수가 한정돼 과목 선택의 다양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외협력처는 GIST의 글로벌 대학로서의 역할 수행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교원, 직원뿐 아니라 학생을 포함한 원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외협력처는 "GIST는 해외 교류 협력 대상 학교를 늘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을 늘리고 있다.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해당 학교를 거쳐 간 학생들의 성과나 교수 간 접촉 등도 필요하다. 모두의 노력으로 다양한 경로를 강구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김기범 기자 kibeomkim@gm.gist.ac.kr

1) INSA(Institut National des Sciences Appliquées 프랑스국립응용과학원), 프랑스의 공학계열 그랑제콜 연합체이다. 기관은 총 다섯 개로 리옹, 렌, 투앙, 스트라스부르와 툴루즈에 위치한다.



제보 및 기고를 기다립니다.



궁금한 일이 있나요? 지스트신문에 취재 요청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자유로운 주제의 기고문 환영합니다!

지스트신문이 학내구성원들의 다양한 제보 및 기고를 기다립니다.

Email) editor@gist.ac.kr

Tel) 062-715-5810

 지스트신문
  지스트신문

학술

역대급 폭우 · 태풍...기상이변으로 몸살 앓은 한반도



2022년 여름은 한반도에 기록적인 기상이변이 여럿 발생한 계절이었다. 8월에는 역대급 폭우로 인해 강남 등 수도권에 침수 피해를 입었고, 9월에는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해 부산, 포항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지스트신문>은 심각해지는 기상이변이 지구온난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 예측,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보도한다.

커지는 기상이변 규모, 늘어가는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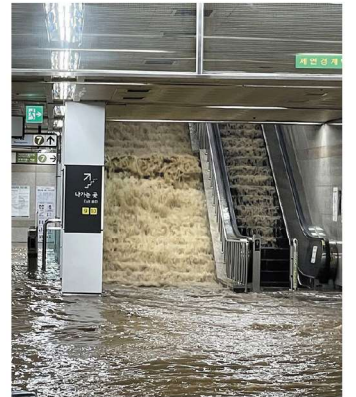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서울시에 의하면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하루 동안 서울 남부에서 평균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최고 141.5mm(동작구)를 기록했으며, 이는 1942년 이후 80년 만에 최고치다.

역대급 폭우로 인한 피해도 컸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8월 16일 오전 6시 기준 해당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40명(사망 14명, 부상 26명)이었으며, 주택 및 상가 침수는 8,970건, 이재민 수는 1,901명이었다. 또한, 1,754ha에 해당하는 농지가 피해를 입었고, 81,857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으며, 도로 사면(67건)과 하천 제방(59건) 붕괴, 산사태(361건)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폭우는 강수의 대부분이 한밤중에 집중됐으며,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 특히 저지대에 위치한 서울 강남 일대가 침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9월 5일부터 6일 사이에는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지났다. 기상청에 의하면,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했을 당시 중심기압은 최저 955.9hPa로, 이는 1959년 사라, 2003년 매미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다. 10분 평균풍속 최고치는 37.4m/s로, 역대 8위의 수치를 기록했다. 힌남노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1명, 실종자 1명이었으며, 재산 피해 규모는 1조 7,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포항제철소가 태풍

피해로 가동이 중단돼 피해액이 커졌다.

힌남노는 발생 및 발달 과정에서 일반적인 태풍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북위 25도라는 다소 높은 위도에서 발생했으며 경로 역시 일본 남쪽에서 대만으로 남서진하다 대만 해상에서 북쪽으로 진행 방향이 급격하게 꺾이는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북상하면서 위력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재발달하거나, 12호 태풍을 흡수해 세력을 키우기도 했다.



올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과 경기 북부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지구온난화, 장기 · 중단기 대책 병행해 피해 줄여야

최근 몇 년간 한반도에서 다양한 기상이변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최악의 폭염이 이어졌고, 2020년에는 남부 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처럼 기상이변은 계속해서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도 커지는 실정이다. <지스트신문>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분석 및 모델링을 연구하는 지구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에게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연관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지구온난화, 대규모 기상이변 발생 확률 높인다

윤 교수는 지구온난화가 기상이변의 규모에 영향을 주며, 날씨를 보다 극단적으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힌남노가 평소보다 북쪽에서 발생하고 중위도에서도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했던 이유를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따뜻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폭우도 태풍과 비슷하게 지구가 더워짐에 따라 규모가 커져 보다 많은 비가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가뭄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는다.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 지표의 수증기가 대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가뭄이 발생한다. 윤 교수는 “기

후변화가 전반적으로 날씨를 극단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교수는 기상이변 현상의 일부 측면은 지구온난화만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해 강한 위력의 태풍이 많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도, 태풍의 개수 자체가 증가하진 않는다는 것이 주 견해”라고 했다. 또한, 윤 교수는 태풍의 경로 역시 단순히 기후변화의 영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윤 교수는 “확실한 점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잡은 기상이변, 경제적 불안 증가시켜

또한, 윤 교수는 기상이변이 일으키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먼저, 윤 교수는 힌남노 이후 농산물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고 폭염이나 가뭄, 태풍 등으로 발생한 농지 피해가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힌남노로 인해 포항제철의 고로가 가동을 중단한 점을 언급하며, 일정하게 가동되어야 하는 공장 상당 시간 멈추면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짐을 역설했다. 윤 교수는 “대규

모 기상이변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이는 경제에 치명적인 요소”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겹쳐 보이는 것보다 많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기상이변 문제 해결, 장기·중단기 대책 병행해야

윤 교수는 기상이변,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장기적 대책과 중·단기적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목표로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실현하되, 그 사이를 메울 중·단기적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중·단기적 목표를 인명피해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며, 기상 예보 정확도 향상, 빗물 처리장치 등의 인프라 구축을 예시로 들었다. 윤 교수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최소 10~20년 동안 온난화 현상이 지속된다”고 덧붙이며, 기상이변 피해를 줄일 대책이 함께 시행돼야 함을 역설했다.

탄소중립, 반드시 가야 하지만 쉽지 않은 길

윤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에는 많은 난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우리의 삶 대부분이 탄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 운송, 소재 등 경제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소고기를 먹어도 메테인이 배출돼 온난화를 유발한다. 윤 교수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경제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하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교수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가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정부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해 투자를 유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국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윤 교수의 견해다.

마지막으로 윤 교수는 “탄소중립이 실현되지 않는 한 기후변화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의 삶 자체가 탄소와 맞물려 있어 복잡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nd of the GIST-Caltech undergraduate exchange program

Caltech SURF, the undergraduate exchange program between GIST and Caltech, which had been running since 2011, came to an end. Although the MOU agreement with Caltech ended in 2021, GIST had been negotiating to extend the deal until May. But the contract comes to naught. However, GIST is seeking new alternative programs, thus improving existing overseas exchange programs, such as mobility programs.

The footprint of GIST and Caltech exchange cooperation

The conclusion of the MOU has been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rough the "GIST-Caltech Joint Research" project. Since 2013, GIST has selected researchers and research topics to promote joint research in material science, life science, and health care. The MOU agreement further supported the student exchange.

Professors, researchers, and students from the two universities conducted joint research. They created a research cooperation fund and established a joint research institute. GIST was the first university in Korea to conduct one-on-one collaborative research with Caltech.

The student exchange program with Caltech also took place in various ways. The MOU agreement facilitated an active undergraduate exchange by providing ▲Caltech SURF Program ▲Caltech SAP ▲Caltech Teacher Invitation Season Semester.

Through the SURF program(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Fellowship program), the two universities continued to cooperate effectively. Caltech SURF is Caltech's unique summer study program for undergraduate students, which conducts research with guidance professors for ten weeks. GIST selects students annually and provides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is program.

GIST provided not only research opportunities but also Caltech regular semester opportunities. The credits earned by attending Caltech's regular semester classes are acknowledged by GIST.

GIST also conducts the Caltech

Teacher Seasonal Semester Program, which opens courses instructed by Caltech full-time professors or teaching assistants in the seasonal semester. Before COVID-19, Caltech's physics, cell biology, and evolutionary biology lectures opened at GIST. Significantly, the "Galapagos Islands Field Trip" with the evolutionary biology course offered unique opportunities for students.

Caltech has shifted to a passive attitude, and GIST is tired of unilateral contracts

In 2016, the MOU period was extended until December 2021.

However, the government decided to end the support for the "GIST-Caltech Joint Research" project at the end of 2019. Since a government support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he MOU agreement, it was unclear whether the contract would be renewed. Eventually, MOU was terminated.

Despite the derailment of MOU GIST and Caltech have discussed extending student exchange programs. The international exchange team said that until last October, the meetings were held with positive prospects for devising a way to develop the student exchange program.

The end of the student exchange program was confirmed in May. There was confusion among students since there had been no special notice about Caltech programs. Therefore, the international exchange team said it was not easy to announce the end of the contract. "It would have been nice if there was a notice before January and February when the existing Caltech program was selected. However, it was uncertain whether Caltech's unilateral decision would extend it until May. After the breakdown, we delayed the announcement because we thought it would be appropriate to present an alternative," he explained.

Increasing the number of selected students and diversifying the dispatched schools

GIST is seeking an alternative to the student exchange program with Caltech. international exchange team said, "There are still few universities like GIST that maintain a high level

of support for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adding, "Since the a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stance is considered a GIST's advantage, we will try our best to continue the stance." GIST plans to complete devising a new alternative program this year and select students between January and February. In addition, international exchange team said it is planning a mobility program as a substitute for the Caltech SAP program.

The new exchange program will be revised to increase the number of selected students. The Section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eam said it could not equally replace the previous Caltech program. Still, preparing alternatives can maintain students' motivation and give them various experiences and opportunities.

The research internship program will allow individual students to apply but will be able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school. Through the research internship program, students can select the research institute where they would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GIST. From now on, GIST is planning a financial assistant to students who applied for an internship at individual universities or facilities such as Max Planck Institute and Caltech. However, unlike the Caltech SURF program, which guarantees full support, the research internship program is expected to cover only some financial help.

GIST is planning to expand mobility programs that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19. The mobility program is a credit exchange program that sends students up to two semesters to universities that have signed MOU with GIST. Airfare will be paid in full, and students will pay tuition fee the same as GIST's regular semester tuition. After the 2019 business plan, 2020 exchange students were selected, but the operation was suspended due to COVID-19, and it resumed in 2021. GIST has selected 56 universities as partner universities for student mobility programs. The schools to be dispatched in 2022 are 10 institutions in the spring semester and 11 institutions in the fall semester, including INSA

in France and the University of Hertfordshire in the UK.

The difference between the mobility program and the SAP program, which is a regular semester program, is that it pays tuition to GIST as it is. In the existing Caltech SAP, GIST paid the tuition required by Caltech. Still, in the case of mobility programs, students spend their education for the regular semester of GIST and are dispatched to overseas universit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obility program and the SAP program is mobility program does not need to pay additional tuition to universities, while GIST should pay extra tuition to Caltech. An increased number of students will have opportunities to apply to the program. Caltech SAP had selected students with an average rating of 3.7 or higher and met the TOEFL IBT score of 110.

But for the mobility program, students with an average rating of 3.0 or higher among students enrolled in the third to seventh semesters and who have acquired 80 TOEFL IBT or 750 TOEIC points or more can apply. The number of selected students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compared to Caltech SAP.

The Sec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team stressed the need for efforts to enhance GIST's role as a global university. "GIST is increasing contact in various ways to increase the number of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GIST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ternational exchange team said. He also claimed that student and professor achievements are necessary to maintain progress. He encouraged students to take care of programs an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He said, "If we explore various paths with everyone's efforts, the satisfactory outcome will be followed naturally."

오피니언

외부칼럼

시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태도

음식과 사랑과 시

그리고 애매모호함에 대하여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급히 먹었다. 내 앞에 놓인 그릇은 내가 해지워야 할 몫이었고 주어진 음식을 다 먹어 치우는 것이 그저 즐거웠다. 밥을 급하게 먹을 때마다 어른들께서 '소화가 잘 안된다, 위가 고생한다'며 음식은 천천히 먹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지만 이런 말들은 튼튼한 위장을 가진 어린 나에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 말들이었다. 그러다가 밥을 한번 꼭꼭 씹어 먹어보게 되었다. 계기는 책의 한 문장이었다. "밥을 입에 넣고 오래 씹으면 침 속의 아밀레이스에 의해 녹말이 당으로 분해돼 단맛이 난다." 실제로 꼭꼭 씹어 천천히 삼킨 밥은 달았다. 입안을 꽉 채워 목에 오는 압박감이 밥의 맛이 아니었다. 그때 여태까지 밥의 단맛을 다 놓치고 살았구나란 생각이 들며 후회스러웠다. 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음식들은 천천히 먹어야 그 참 맛을 음미할 수 있었다. 물론 입에 넣은 첫 순간의 맛으로 그 음식의 맛이라 단정 지으면 편하긴 하다. 오묘하게 섞인 맛들이 무슨 맛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밥 먹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그러나 한 평생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다양한 맛들을 못 느껴보고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급히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소량의 시간적 이득은 그렇게까지 값어치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음식을 다 먹어 치웠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맛들을 얼마나 풍부하고 섬세하게 느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의 습관은 사소해 보이더라도 그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준다. 음식을 급히 먹는 습관은 사랑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접시 위에 놓이면 음식 때가 똑같이 급히 먹어 치웠다. 사귄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귄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닌데 빠르게 끝을 보는 데에 급급했다. 그래서 서둘러 그르치는 일도 있었고 사귀게 되었지만 허무함만 남은 경우도 있었다. 스스로의 말로 사랑을 정의해보려 하는데 부정적 능력이 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다. 맴돌던 말들이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애매모호함

을 견디는 것. '가능한 한 빨리 상대를 알아버리고 싶다면 마음껏 소비하고 성급하게 정의해버리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내 모습이었다. 와인도 공기와 접촉하면서 그 맛이 달라진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신다. 사랑도 와인처럼 입 안에서 굴리면서 시간이 녹아들며 따라 달라지는 향을 오롯이 마셔야 하는 게 아닐까. 와인은 다 마셨다는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좋은 것이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부터 연애 그리고 잊어가는 과정까지가 다 사랑이다. 첫 단맛부터 끝의 뽀은맛까지가 와인이듯이.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레이스가 아니다. 주어진 삶을 다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 우린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항상 직시하지는 않는다. 우린 존재의 언어로 대화하며 죽음을 코앞에 다 놓기도 하고, 세속적인 잡어를 나누면서 죽음을 뒤로 밀어놓기도 한다. 우린 완전히 살아있지도 완전히 죽어있지도 않는다. 산다는 것은 그 애매모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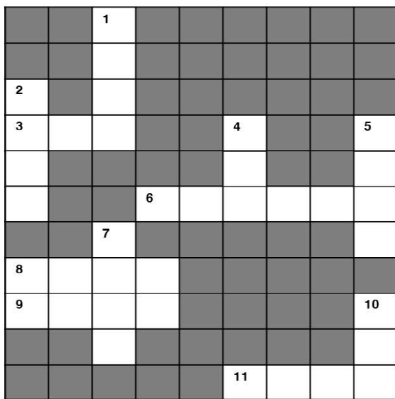
을 견디는 것이다. 삶과 죽음 사이 우리의 위치를 단정하는 순간 삶은 끝나기 때문이다. 존재에 대해서 골몰하다가 확 죽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적당히 잡어도 먹으면서 꾸역꾸역 버티는 것, 그 와중에 드는 감정이나 경험을 음미하며 풍요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음식과 사랑이 그랬듯 말이다. (후략)

<시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태도> 전문은 gistnews.co.kr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신재룡 (전립, 19)

십자말풀이



지난호 정답

브	라	우	저	M	O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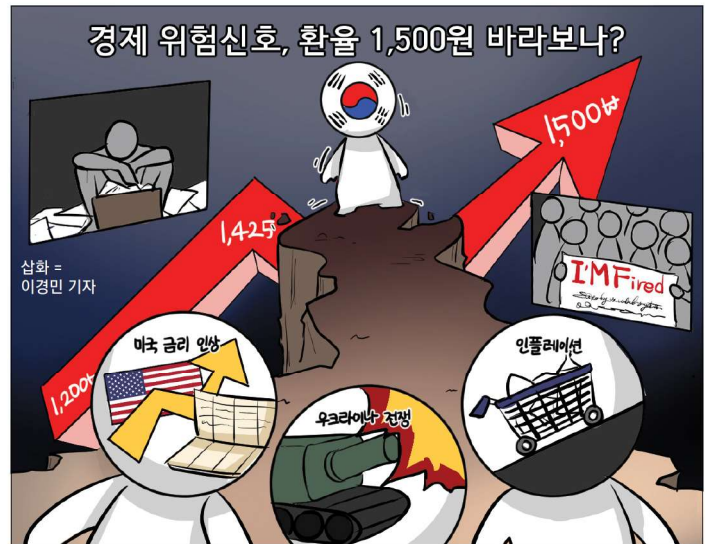
가로

- 3. 목성 궤도 및 그 안쪽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보다 작은 천체
- 6. <지스트신문>에서 시행 예정인 e메일을 통해 신문을 받는 서비스
- 8. GISTV와 유튜브 서포터즈가 병합된 홍보팀 산하 영상 콘텐츠 제작 단체
- 9.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약칭
- 11.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세로

- 1. 크기가 (10×10×10)cm³에서 (20×10×60)cm³사이인 인공위성
- 2.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되는 탄소 양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개념
- 4. 파일을 열지 않고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축소된 이미지
- 5. 무인 단말기. 상품 주문 및 결제, 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7. 컬텍에서 제공하는 학부생 대상 교내 연계 연구 프로그램.
- 10. 온실가스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20배 이상에 달한다.

만평



사 ■임명
책임기자 박준서
변진철

령



지스트신문

2016년 4월 11일 창간
발행인 김기선
주간 이주형 편집장 이은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LG도서관 102호 GIST신문사
전화 062-715-5810
이메일 editor@gist.ac.kr 웹사이트 gistnews.co.kr
페이스북 facebook.com/Gistsinmoon
인스타그램 @gistnews_official